

# 마동석 “잘 때리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한다”

영화 ‘범죄도시3’ 22일 언론 시사 첫 공개  
 마동석 “내가 나를 따라하지 않으려 했다”  
 “복부 가격 액션 위험 더 섬세하게 연기”

배우 마동석은 “내가 나를 따라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한국영화 최고 기대작 ‘범죄도시3’가 22일 언론 시사회를 통해 공개됐다. 마동석은 시사회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가 나를 따라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다. 같은 유머도 다르게, 같은 액션도 다르게 표현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압박에 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마동석은 ‘범죄도시3’는 빌런(villain·악당)이 2명이기 때문에 액션 양이 전작보다 늘었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세팅해놓은 극강 빌런이 2명이다 보니 당연히 소화해야 할 액션 횟수나 양이 많았다”며 “어릴 때부터 해 온 운동이 복싱이기 때문에 액션 장면을 만들 때도 복싱을 바탕으로 매 편 조금씩 디테

일을 다르게 가져 가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 액션은 전작과 비교해 복부를 가격하는 액션 비중이 늘었다. 마동석은 “복부를 가격하는 액션은) 일반 액션보다 위험도가 최소한 서너 배 이상 높다. 실제로 (주먹이) 얼굴에 걸리거나 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액션 연기를 했다”고 했다. 그는 또 “뽀뽀를 때리는 액션을 위해 안전 패드 등 장치를 했다”며 “힘 조절을 해도 장기가 울리기 때문에 난도가 있다. 항상 조심하려고 했고,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범죄도시3’는 2017년 ‘범죄도시’, 2022년 ‘범죄도시2’로 이어진 ‘범죄도시’ 시리즈 세 번째 영화다. 서울 광역수사대에서 일하게 된 마석도가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일



이 신종 마약 유통과 관련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마동석과 함께 이준혁·이범수·김민재·이지훈·전석호·고규필 등이 출연하고,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도 나온다.

앞서 ‘범죄도시’는 688만명, ‘범죄도시2’는 1269만명이 봤다. ‘범죄도시2’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나온 1000만 영화였다. 연출은 ‘범죄도시2’를 만든 이상용 감독이 다시 한번 맡았다.



## 엔하이픈, ‘다크 블러드’ 음반 발매일 밀리언셀러

4세대 K팝 주요 그룹 ‘엔하이픈(ENHYPEN)’의 새 앨범 ‘다크 블러드(DARK BLOOD)’가 발매 당일 밀리언셀러가 됐다. 23일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엔하이픈이 전날 발매한 미니 4집 ‘다크 블러드(DARK BLOOD)’가 당일에만 총 110만8337장이 팔렸다. 이에 따라 엔하이픈은 데뷔 2년 반 만에 3개 앨범을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엔하이픈이 2021년 10월 발매한 정규 1집 ‘디멘션 : 딜레마(DIMENSION : DILEMMA)’가 이 팀의 첫 밀리언셀러작이다. 특히 지난해 공개된 미니 3집 ‘매니페스토 : 데이 원(MANIFESTO : DAY 1)’은 발매 2일 차에 밀리언셀러가 됐는데 ‘다크 블러드’는 이보다 시간을 크게 단축해 엔하이픈의 자체 최단기 기록을 경신했다.

한터차트 기준 지금까지 앨범 발매 당일 100만장 이상 판매한 K팝 팀은 그룹과 솔로를 합쳐 이번 엔하이픈까지 10팀이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세븐틴’(SVT),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스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슈가(어거스트) 등의 각각 솔로 앨범, ‘트세라림’, ‘에스파’ 등이 있다.

이 중 방탄소년단·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엔하이픈은 모두 하이브 레이블즈에 속했다. 엔하이픈이 막내다. 한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 소속 ‘엔탈’을 제외하고 현재 하이브 레이블즈 보이그룹 전부다. 이로써 하이브는 명실상부 K팝 보이그룹 명가가 됐다.



## 그룹 틴탑, ‘니가 아니라서’ 2023년 버전 재탄생 확정

그룹 ‘틴탑’이 숨겨진 명곡 ‘니가 아니라서’를 2023년 버전으로 다시 부른다. 23일 소속사 티오컴퍼니에 따르면 틴탑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틴탑 리·코딩 프로젝트(TEEN TOP Re-cording Project)’의 투표 결과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최종 투표 결과 ‘니가 아니라서(Missing You)’가 아침까지(ah-ah)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새 앨범 타이틀곡과 함께 네 명의 목소리로 완성된 2023년 버전 ‘니가 아니라서’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틴탑 리·코딩 프로젝트’는 오는 7월 공개되는 틴탑의 신보에 담긴 리레코딩 버전 트랙을 선정하는 이벤트다. 틴탑의 숨겨진 명곡을 팬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니가 아니라서’는 틴탑표 감성 발라드다. 지난 2013년 발매한 틴탑의 첫 정규앨범 ‘넘버원(No.1)’에 수록돼 타이틀곡 ‘긴 생머리 그녀(Miss Right)’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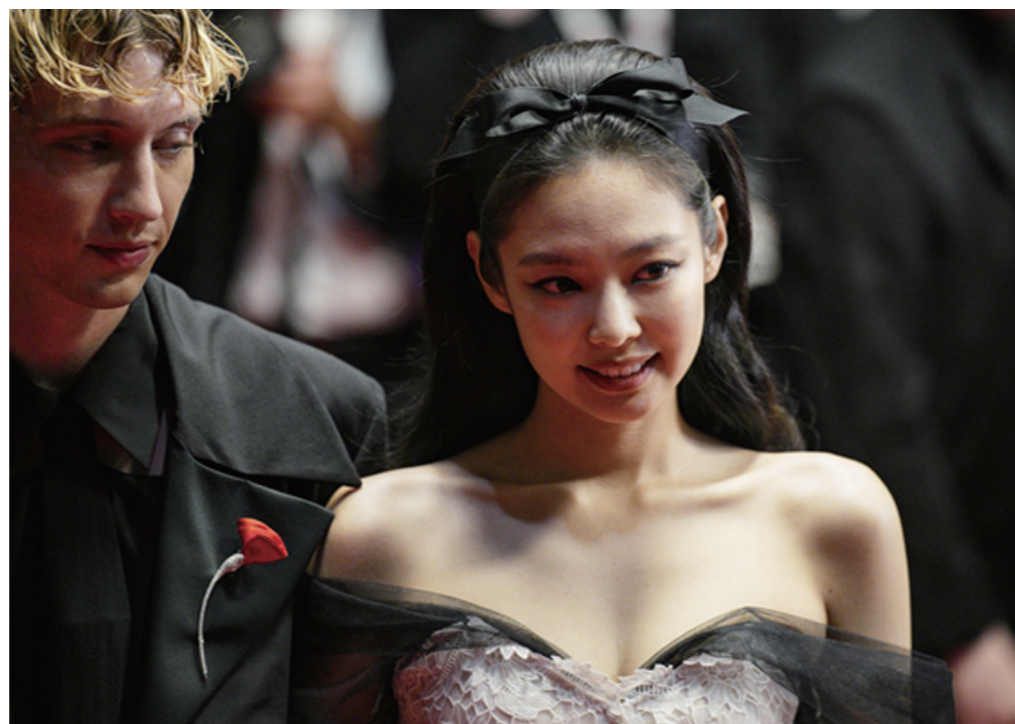
더불어 틴탑은 공식 팬클럽 엔젤 8기도 모집한다. 컴백과 함께 멤버들은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10년 가요계에 데뷔한 틴탑은 ‘미치겠어’, ‘긴 생머리 그녀(Miss Right)’, ‘장난아나(Rocking)’, ‘항우 뿌리지마’, ‘To You(투유)’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배출했다. 이후 멤버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초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재조명 받은 틴탑은 팬들의 관심에 힘입어 3년 만에 컴백 소식을 알렸다. 한편 틴탑은 새 앨범 발매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 ‘배우 데뷔’ 블랙핑크 제니, 칸 레드카펫도 달궜다

미국 HBO 드라마 ‘디 아이돌’ 시사회 등장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27·김제니)가 배우 자격으로 ‘칸 국제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제니는 ‘제76회 칸 국제 영화제’ 기간인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칸에서 펼쳐진 미국 HBO 드라마 ‘디 아이돌(The Idol)’ 시사회 전 레드카펫 행사에 등장했다. 앞서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칸 국제 영화제가 발표한 비경쟁 부문 초청 라인업에 ‘디 아이

돌’이 포함되면서 제니의 칸 영화제 레드카펫 데뷔에도 관심이 쏠렸다. ‘디 아이돌’은 캐나다 출신 팝 슈퍼스타 위켄드(The Weeknd·아벨 테스파예)가 제작하고 HBO ‘유포리아’의 샘 레빈슨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떠오르는 팝 아이돌을 둘러싼 관계들과 음악 산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HBO는 ‘왕좌의 게임’을 비롯해 ‘체르노빌’ 등 다수의 인기작을 만들었다. ‘디 아이돌’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제니와 위켄드를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 동시 국적의 배우 겸 모델 릴리 로즈 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호주 싱어송라이터 트로이 시반 등이 출연한다. 시반은 이날 제니와 함께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았다.

지난해 7월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베일에 싸여있던 제니가 맡은 배역은 최근 댄서로 알려졌다. 블랙핑크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로서 존재감을 증명해 온 그녀의 첫 연기 도전이기에 글로벌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니는 앞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 꼭 함께 하고 싶었다. 매우 설렌다. 열심히 할테니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니는 연기는 처음이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팝스타인 만큼 그녀가 레드카펫에 서자 열기는 뜨거웠다.

어깨가 드러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검정 리본을 달았는데, K팝 무대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곳곳에서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가 잇따라 터졌다.

앞서 미국 연예 미디어 데드라인이 “초대형 인기 밴드 블랙핑크의 멤버로 가장 잘 알려진 제니가 참석한다면 칸은 젠지(Gen-Z) 중심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블랙핑크 멤버 중 배우 활동을 병행하는 건 지수에 이어 제니가 두 번째다. 지수는 앞서 JTBC ‘실감화’(2021~2022)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해 주목 받았다.

## 그룹 ‘H.O.T.’ 상표권 주장한 前 SM 대표…패소 확정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아이돌그룹 ‘H.O.T.’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주최사 솔티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H.O.T. 멤버들은 지난 2018년 10월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김 전 대표이사가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해 멤버들과 공연 주최사는 콘서트 타이틀을 ‘하이파이브 오브 띠에이저스’로 표기했다. 이후 김씨는 공연주최사인 솔티노베이션이 콘서트 홍보와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특허법원은 “김씨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돼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한 상표법상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경욱 전 대표이사, 공연주최사를 상대로 소송



H.O.T.는 1996년 데뷔해 2001년 해체할 때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 김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룹명을 구성하는 영문자들을 결합해 로고화하는 것을 착안한 창작자로 알려졌다.



## 가수 이효리 “예전의 화려함 기대하세요”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기획한 ‘댄스가수 유랑단’을 선보이는 소감을 밝혔다.

이효리는 23일 열린 tvN 예능물 댄스가수 유랑단 제작발표회에서 “엄정화 언니 휴대폰에 번호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사실 내가 이걸 하자고 얘기를 꺼내 책임감이 컸다. 언니, 동생들이 힘들어하고 ‘괜히 했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이라며 “처음에는 소소한 지방 공연을 생각했지만, 무대가 커지고 화려하게 꾸며졌다. 생각보다 우리 인기가 많다”고 털어놨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여왕 대접을 해줘 기분이 좋았다”며 “소소한 모습도 좋지만 예전의 화려함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충족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댄스가수 유랑단은 국내 최고 여성 가수들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돌며 팬들과 만나는 이야기다. 김태호 PD와 강령미 PD가 티빙 ‘서울체크인’, tvN ‘캐나다 체크인’에 이어 만들었다. 서울체크인 촬영 중 이효리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김완선, 엄정화, 보아, 화사와 만난 자리에서 ‘2021 MAMA’를 준비하며 떠올린 댄스 가수 전국 투어 콘서트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김 PD는 “다른 시대에 활동한 5명이 공감할 형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만나면 얼마아마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며 “방송에서는 4분의 무대로 보이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 선곡과 편곡, 안무, 퍼포먼스까지 1~2개월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무대에 중심인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이효리와 서울·캐나다체크인에 이어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도 호흡한 것과 관련 “산타를 만난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효리는 “다음에는 나영석 PD님과 한 번 해보고 싶다”면서 “이제 질렸을 거다. 나랑 벌써 몇 년째냐”며 웃었다. 김 PD는 “나 PD가 연출한 tvN ‘출장 심오야처럼’ ‘출장 TEO’를 준비하고 있다. ‘상순이네’를 준비 중”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25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